

기독교 사회복지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

최병철 · 김기원**

I. 서론

오늘날 자본주의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원적 복지제도이다. 사회복지의 주체가 정부 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나아가 개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하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야의 하나는 종교와 사회복지이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원칙하에서도 양자는 사회복지가 서로 협력해서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영역임을 확인하여 왔다. 종교단체가 정부의 재정적 후원하에 복지기관을 위탁운영을 해오기도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많은 단체들은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

기독교가 빈곤이나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식견은 다소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일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렸기 때문에 빈곤은 대체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으며 빈곤문제도 많은 경우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음주나 나태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 즉 사례빈곤(case poverty)으로 보았다. 이는 노동지향적인 사회규범을 창조하는데 일조를 하였지만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일으키기도해 기독교가 한편으론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반사회복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보수주의적인 복지관은 빈민들을 과부나 고아 같은 도움을 받아 마땅한 빈민과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복지관은 나아가 소위 welfare vs. workfare 논쟁과도 접맥될 수 있게 되었고 소위 '신중한 사회복지제도(prudent social welfare system)'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수적인 사회복지문화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도 지배적인가를 살펴보고, 교회사회봉사를 중심으로한 기독교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강구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독교 사회복지현황을 수도권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어떠한 변수들이 어떻게 기독교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사회경제적 요인, 빈곤관, 지역사회문제, 사회봉사교육, 지역주민기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 공동연구논문

** 서울 장로회신학교 교수

II. 방법론

1. 자료

본 논문을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장로회신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1991년 부터 1993년 까지 3년에 걸쳐 서울특별시와 인근지역의 661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교회의 선정은 다단계층화표본추출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조사는 사회조사교육을 받은 면접자가 직접 해당교회나 관련자를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고 소위 면접자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자에게 면접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다. 본 자료에는 교회의 사회경제적 특징, 빈곤관, 지역사회문제, 교회사회봉사, 봉사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2. 분석기법

첫째, 표본교회들의 특징을 단순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둘째, 빈곤해결책임이 본인에게, 교회에, 사회복지기관에, 정부에 있는가 없는가의 양자선택의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Logit model을 통해 어떤 변수들이 특정 견해를 가질 확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셋째, 기독교 사회복지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모델이 사용되었다.

III. 분석결과

1. 표본특징분석

첫째 교회의 사회경제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교회의 수는 661개로서 80%가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서울시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의 97%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소재해 있다. 표본교회의 평균 출석교인수는 760명이나 표준편차가 평균의 2배 이상이 되므로 교인수에서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표본집단임을 알 수가 있다. 평균 결산총액은 2억 9천만원이었으나 표준편차가 평균의 2배 가량 되므로 재정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이질적임을 알 수가 있다. 응답자의 54%가 목회자나 전도사이었으며 나머지는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둘째, 빈곤문제의 해결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37%가 본인에게 있다고 했고, 54%가 정부에 있다고 했으며, 단지 4%만이 교회에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친척, 이웃,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있다고 하였다.

셋째, 교회가 속한 지역의 사회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빈곤, 노인, 청소년, 아동, 여가시설, 치안, 환경공해, 퇴폐환락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어느정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반면 빈곤문제

는 심각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교회사회봉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35%가 교회의 사회봉사참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극히 보수주의적인 교회사회복지관을 표명했으며 나머지 65%는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에 보완적인 교회사회복지관(residual view of church social work) 내지 적극적인 사회봉사참여를 지지하는 제도적 교회사회복지관(institutional view of church social work)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35%가 사회봉사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고 이들 가운데 약 65%가 6개월 이하의 중단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의 사회봉사지원자세가 대부분 다소 소극적이라 응했으며 지역주민들의 교회사회봉사에 대한 기대나 요구는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결산액 가운데 구제 및 사회봉사에 사용된 금액은 평균 9.38%로 나타났으며 약 65%의 교회가 16%이내의 범위내에서 구제 및 사회봉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응답자가 생각한 교회사회봉사비의 이상적인 비율은 평균 약 19%로서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사회봉사지출액이 응답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수준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사회봉사프로그램이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응했으며 사회봉사프로그램실행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약 60%가 목회자라고 하였고 제직이라고 한 사람은 20%이었다.

2. 기독교사회복지 결정요인분석

1) 교회의 빈곤해결책임의식

빈곤문제에 대해 교회가 해결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기독교사회복지를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이다. 이러한 책임의식에 대해 어떠한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Logit Model을 사용해 분석한다.

도표1.

독립변수 \ 종속변수	빈곤문제해결책임이 교회에 있는가(1=예, 2=아니오) (유의수준 : * 0.10, **0.05, ***0.01)		
	Model1	Model2	Model3
절편	-3.504	-8.1402	-8.8455
<u>사회경제적 특징</u>			
교파(1=장노교)	0.5564	0.6963	0.7442
출석교인수	-0.0005 **	-0.0006 **	-0.0002
설립년도	-0.0054	0.0064	0.0320
결산총액	0.2067 ***	0.2078 **	0.1116
소재지(1=공단, 농촌)	-5.2741	-4.8479	-6.1847
직분(1=목회자)	0.1969	0.4524	1.4556 *
<u>지역사회문제</u>			
빈곤(1=예)		0.2080	-0.0598
노인(1=예)		0.4966	1.3685 **
청소년(1=예)		-0.1385	-0.0091
아동(1=예)		0.3758	1.2647
여가시설(1=예)		0.3934	0.1430
치안(1=예)		-0.4505	-0.4008
환경(1=예)		-0.2096	0.5052
퇴폐(1=예)		0.6846	0.0144
<u>사회봉사</u>			
봉사교육(1=예)			-1.5936
봉사교육기간			0.0823
교단봉사교육			-1.0062 **
Log Likelihood	158	135	69

첫째, 사회경제적 특징만을 고려할 때 출석교인수가 많을수록 빈곤문제에 대해 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총액이 많을수록 책임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특징에 지역사회문제들을 첨가했을 때 출석교인수와 결산총액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같은 지역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출석교인수가 적을수록, 결산총액이 많을수록 빈곤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의식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가 퇴폐문제를 겪고있는 교회가 빈곤해결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경제적 특징과 지역사회문제에 사회봉사교육을 추가 고려했을 때, 출석교인수, 결산총액, 퇴폐문제 등은 더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나 교회직분과 노인문제가 새로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회봉사

교육요인들 가운데서 교단의 봉사교육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교단이 교회에 사회봉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킬수록 빈곤에 대해 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질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봉사교육과 관련된 변수들이 첨가된 이후 교회직분이 통계상 의미있는 변수로 변한 것이다. 이는 목회자나 전도사의 의식변화를 말해준다. 즉 교단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교육을 시켰을 때 목회자나 전도사는 교회가 빈곤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의식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교단의 적극성이 사회교육기관의 봉사교육이나 교육기간의 장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내용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교회결산액 가운데 구제봉사에 지출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도표2는 구제봉사비가 교회결산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에 어떠한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중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사회경제적 요인들만이 구제봉사지출이 결산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결산총액이 많은 교회일수록 구제봉사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구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문제를 고려하면 지역사회문제가 비슷한 교회 가운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결산총액이 많은 교회일수록 구제봉사지출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문제 가운데 요보호아동문제를 더 심각히 겪고 있는 교회일수록 구제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문제에 지역주민반응을 첨가해보면 지역주민이 교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나 사회봉사에 대한 기대가 같을 경우 교회역사나 결산총액은 더이상 결정요인이 되지 못한 반면 요보호아동문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주민이 교회를 방문해 도움을 청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구제봉사에 지출한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사회문제, 주민반응외에 사회봉사교육을 고려했을 때 교단의 사회봉사교육이 중요한 결정변수로 작용했으며 교회소재지가 새로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사회봉사교육에 적극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일수록 구제사업지출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단이 사회봉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킨다면 공단이나 농촌 이외의 일반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위치한, 빈곤이나 사회연대의식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교회가 오히려 더 구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사회문제, 주민반응, 사회봉사교육에 사회봉사의 전도효과를 고려하면 사회봉사가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같고 교단의 사회봉사교육의 적극성이 비슷한 교회들 가운데 일반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 소재할수록, 지역사회가 빈곤, 요보호아동, 치안문제가 심각할수록, 주민의 사회봉사가 기대가 클수록 구제봉사지출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2.

독립변수 \ 종속변수	빈곤문제해결책임이 교회에 있는가(1=예, 2=아니오) (유의수준 : * 0.10, ** 0.05, *** 0.01)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11.8897	16.8817	19.0678	23.2516	20.1841
절편	-1.1098	-1.0548	-0.9546	-0.8275	-1.5698
<u>사회경제적 특징</u>	-0.0004	-0.0002	-0.0002	-0.00005	-0.00009
교파 (1=장노교)	-0.0312	-0.0376*	0.0268	0.0105	0.0374
출석교인수	0.3342**	0.2704*	0.1985	0.0411	0.1143
설립년도	-0.5986	-1.4031	-1.463	-4.9681**	-4.6626*
결산총액					
소재지 (1=공단, 농촌)		0.4009	0.7895	1.3951	2.1320*
<u>지역사회문제</u>		-0.6179	-0.4363	-0.3575	0.2570
빈곤 (1=예)		-0.7352	-0.7935	-1.1899	-1.4266
노인 (1=예)		-1.1274*	-1.1112*	-1.4563	-2.1107*
청소년 (1=예)					
아동 (1=예)		0.6433	0.5081	-0.7906	-0.6705
여가시설 (1=예)					
치안 (1=예)		-0.0304	-0.2628	1.4935	2.5964
환경 (1=예)		-0.5336	0.5201	0.9249	-1.1074
퇴폐 (1=예)					
<u>지역주민반응</u>		0.0689	0.3278	0.3801	0.4568
방문요청					
주민기대			-1.0942**	-0.6978	-0.1576
<u>사회봉사</u>			-0.4399	-0.3629	-2.0442*
봉사교육 (1=예)					
봉사교육기간				1.1194	0.4995
교단봉사교육					
<u>전도와 사회봉사</u>				0.0832	0.4571
전도효과				-2.4044***	-1.7866**
R square					-0.7956
	0.0533	0.1069	0.1264	0.2115	0.2307

IV. 결론

복지다원주의하에서 또한 역사적으로도 기독교가 사회복지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표본교회를 중심으로 빈곤관이나 사회봉사참여의식을 통해 살펴보면 한국기독교는 대체로 보수적인 교회사회복지관을 갖고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분석결과만을 토대로하여 기독교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무엇 보다도 교단이 적극적으로 소속교회에 사회봉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나 전도사가 갖고 있는 빈곤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의식도 교단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교육을 시키면 의식변화를 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교단의 이러한 교육은 사회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교육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빈곤문제나 사회연대의식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지역의 교회도 교단이 사회봉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구제봉사활동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교단의 사회봉사교육이 한국기독교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